

카스트로프, 홍명보호 중원에 새 바람 예고

축구 대표팀 현지 첫 훈련 참여...영어로 소통하며 동료들과 발 맞춰
훈련조 공수 나눠 '집중 담금질'...7일 미국·10일 멕시코와 친선경기

축구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국외 출생 현역 태극전사' 엔스 카스트로프(22·빈켄글라트바흐)가 잔디 위에서 동료들과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카스트로프는 3일 미국 뉴욕의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현지 첫 훈련에 참여했다.

독일 태생으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미드필더 카스트로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멕시코와의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명단에 올려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독일 연령별 대표로 뛰었고 최근엔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그가 가세하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대표팀 중원에 새 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날 미국에 도착해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구성원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스트레칭 등 실내 회복 운동을 소화한 카스트로프는 이날 대표팀의 첫 현지 그라운드 훈련에도 함께 나섰다.

동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들어선 카스트로프는 초반 미디어에 공개된 훈련 시간엔 몸풀기와 볼 돌리기 등 각종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다.

대표팀 관계자는 "카스트로프는 아주 외향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내성적이면서도 진지한 성격인 것 같다. '츄데레' (무심한 듯 신경 쓰고 챙겨주는 성격)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며 최근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카스트로프는 현재 대표팀 내에서는 주로 영어로 소통하며 녹아들고 있다.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원어 정상빈(세인트루이스)은 "카스트로프 선수와 영어로 소통이 돼서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훈련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워낙 좋은 선수와 영상도 많이 봐서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어떨지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는 폴백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은 "이번에 미국으로 들어오며 공항에서 만났는데, 카스트로프 선수가 대표팀 분위기를 먼저 물어봐 줘서 말해줬고, 저도 5대 리그에 진출하고 싶기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태석은 "카스트로프 선수가 빨리 적응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팀은 이날 초반 몸풀기를 포함해 1시간 30분 정도 훈련을 하며 '집중 담금질'을 했다.

직전 소속팀 경기 출전 시간과 이동 거리 등이 각자 다른 터라 이날 대표팀은 회복조와 훈련조로 나눠 '투 트랙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30일 제주 원정경기를 소화했던 광주 변준수와 함께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비롯해 이재성(마인츠), 설영우(츠르페나 즈베즈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김주성(산프란체스코 시마), 김태현(가시마), 이명재, 김문환(이상 대전), 서민우(강원), 이동경(김천)이 회복조로 분류됐다.

모든 선수가 조깅과 볼 돌리기를 비롯한 몸풀기 운동을 함께한 뒤 회복조는 컨디션 회복을 위한 운동에 집중했고, 훈련조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 부문으로 나눠 세부적인 움직임을 다듬었다.

공격 부문 선수들은 상대 수비 포메이션 예상을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한국 대표팀에 선발된 엔스 카스트로프가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대로 마네킹을 세워놓고 공격을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수비진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이한범(미

트윌란) 등 센터백 자원 공중볼 경합과 클리어링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홍명보호는 7일 오전 6시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

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이재성·해남군청 이은빈, 전국육상대회 금빛 질주

100m 남녀 동반 우승...광주시청, 400m 남자 계주도 금

광주·전남 선수들이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에서 100m 남녀 동반 우승을 이뤘다.

남자부 100m에서는 광주시청 이재성이 주인공이 됐다. 이재성은 3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선에서 10초33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0초37의 김시은(경산시청)을 따돌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이재성과 지난 7월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U대회 사상 첫 한국육상 계주팀 금메달을 함작했던 나마디 조엘진(10초41)이 3위를 기록했다. 이재성은 4일 남자 200m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여자 100m에서는 올해 실업무대에 데뷔한 이은빈(해남군청)이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이은빈은 11초98을 기록하면서 12초07의 이현

희(안동시청)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은빈은 지난 5월 제54회 밀양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6월 제53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도 100m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재성의 우승 질주로 대회를 연 광주시청은 400m 남자 계주에서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태호·김국영·강의빈·고승환이 호흡을 맞춘 계주팀은 39초 36의 기록으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스포츠 도시 광주 알리기 앞장

세계양궁대회서 선수 컨디셔닝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K-스포츠과학과 '민중·인권·평화, 스포츠 도시 광주' 알리기에 나선다.

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5일 개막하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K-스포츠과학 현장 지원'에 나선다.

스포츠과학연구원은 광주스포츠과학센터 박사급 연구원과 컨디셔닝센터 전문인력을 파견해 76개국 731명의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을 지원한다.

2억원 상당의 전문 장비를 투입해 스트레칭, 부상 예방, 경기 전·후 회복 컨디셔닝,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멘탈 지원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이에 맞춰 스포츠과학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연



김석환 스포츠과학연구원장이 3일 연구원에서 광주여대 자원봉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구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상황 대비 시 물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리허설도

진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우수협회와 전남도청 우수팀이 진행한 '청소년 운동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전남도청 우수팀 훈련장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우수, 청소년 체력 증진 운동 프로젝트 성료

전남도우수협회와 전남도청 우수팀이 순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동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순천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전남도청 우수팀 훈련장에서 무료로 진행됐다.

수업은 ▲우수 기초 동작 습득 ▲우수 산타 체험 ▲체력·근력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

신감 향상을 목표로 했다.

전남우수협회에서 파견한 전문 지도자와 전남도청 우수팀 지도자 및 선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을 지도했다. 이들은 꾸준히 수업에 참여한 20여명의 학생들에게 격투기용 글로브도 선물했다. 장보근 전남도청 우수팀 감독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며, 우수의 기본기와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The Flow of Light

빛이 흐른다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The Echo of Peace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